

데스크시각



송기동 편집부국장·문화2부장

“본선에 승선하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여객선 ‘천사 아일랜드호’에 막 오르자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안내방송이 들려온다. 신안군 입해를 송공항에서 배를 타고 대기점도를 찾아 가는 길이다. 30도를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신안 12사도 순례길을 찾았다. 송공항에서 뱃길로 한 시간 거린 대기점도와 소기점도·소악도·진섬·판섬은 ‘순례자의 섬’으로 불린다. 노두길로 연결된 5개의 섬에 12개의 예배당이 아기자기하게 조성돼 있다. 대기점도 선착장에 위치한 ‘건강의 집(베드로)’은 그리스 산토리니 섬 건축물을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모습으로 순례자들을 맞았다. 코발트색 지붕과 하얀 벽체가 특징이다. 배에서 내린 여행자들은 건물 옆에 설치된 종을 울리며 순례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어느새 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여름휴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터널 속에 갇힌 듯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감염병은 지난달 말부터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여름휴가 이야기를 꺼내자니 좀 어색스럽고 주저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여름휴가를 안 갈 수도 없는 노릇. ‘슬기로운’ 여름 휴가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3밀’ 피해 ‘비대면’ 선호

그동안 여름휴가의 피크는 ‘7월·8초’(7월말·8월초)였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고 여름을 나야 할 엄중한 상황인 올해의 경우는 달라질 것이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시기는 피할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을 삼갈 것을 권고한다.

몇몇 지인들에게 여름휴가에 대해 물었다. 대부분이 아직 뚜렷하게 장소나 일정 등을 짜고 있지 않았다. 해외여행은 염두를 낼 수 없고, 국내 여권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집콕”을 하겠다. 집에서 쉬면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곳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고 싶다.” “그냥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한다든가, 북스테이 숙소에서 에어컨 바람 아래 그저 책만 보다가 뒹굴거리는 시간을 보낼까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이미 상반기에 여행과 레저 관련 트렌드가 형성됐다. 캠핑·낚시·등산 관련 용품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타인과 접촉을 피하면서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언택트’(비대면) 아웃도어 활동의 특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이나 전문가들도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호조한 ‘소도시 여행’과 집에서 머물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근거리·단기간·저비용’ 여행 등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행을 주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집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과 ‘홈캉스’(홈+바캉스) 등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나만의 피서법을 찾아라

코로나19는 삶의 자전축을 뒤바꾸고 있다. 코로 숨쉬면서 사람들을 만나 얘기하는, 당연하면서도 평범한 일상조차 쉽지 않아졌다. “사람이 지금처럼 무서운 때가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감염병이 종식된다 해도 이전과 똑같은 궤도로 복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여행이나 휴가를 통해 찾고자 하는 ‘행복의 척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아주대 교수는 지난 6월 발간된 ‘코로나 사피엔스’에

서 풍선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에 비유하면서 ‘행복의 척도’를 설명한다. 풍선을 사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풍선을 사주었더니 아이는 얼마 후 팔아 아파드며 풍선을 그냥 놓아 버린다. 왜 그랬을까? 풍선을 사달라고 했던 장소에서는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모두 풍선을 갖고 있고 자신은 안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풍선을 놓아 버린 장소에서는 주위의 아이들이 모두 풍선을 갖고 있지 않았다.

진짜 좋아하지도 않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으면서 원하는 것, 이를 김 교수는 ‘사회적 원트(Want)’로 표현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을 사회적 원트가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라이크(Like)’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로 하여금 금탄을 자아내는 것. 그러니까 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꽃의 색깔이 바뀌면 그걸 보면서 감탄을 하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맛에 약간의 변화만 있어도 감탄을 하고요. 즉 나의 미학적 경험, 나의 감탄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실제로 내 것인 셈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척도’ 논리를 올 여름 휴가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홈캉스’와 북스테이, 숲속 캠핑, 순례길 걷기, 식도락 여행 등 유희자적하는 ‘나만의’ 피서법은 다양할 것이다.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찾아야 하는 여름휴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社說

광주 코로나 이러다 대구보다 더 심해질라

광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초동학생에 이어 첫 미취학 아동 확진자도 나왔다. 2차 유행이 시작된 지 10일 만에 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 지역 전체 확진자 수도 지난 주말에 이미 100명을 훌쩍 넘어섰다. 한때 방역 모범 도시로 꼽혔던 광주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한 배경은 무엇일까. 광주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보다 전파력이 여섯 배나 높은 변종이라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 등 방역당국과 일부 시민의 방심 때문이라는 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느슨해진 방역 의식에 따른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과신과 함께 너무 안이했다. 확진 시민 중 일부는 감염 증상 발현 이후에도 다중시설을 거리낌 없이 이용하고, 확진 후엔 각종 거짓말로 동선을 숨기는 등 방역

당국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생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격리 지침을 어기고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힌 확진자도 있었다. 실제 이번 집단 확진 사태를 역학조사한 결과,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마스크조차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이 노출됐다. 일부 시민들이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소홀히 한 결과물이 빠른 확산'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다 코로나 확산 초기 대혼란에 빠졌던 대구보다 광주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초심을 잃고 느슨한 방역 생활을 해 온 우리 모두 이제 크게 자성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아야겠다.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타개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보이고 있다. 이에 전국 5개 지역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부산·대구·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그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본국 회귀)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시킨 것을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의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데도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일국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가 자원 대부분이 집중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지방 경제의 어려움은 외환 위기 때보다 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하다”며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

경제부터 살리고 난 이후에 수도권 규제의 빚장을 푸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수도권 집중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가속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사상 처음 추월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5월 기준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이 105곳으로, 작년 동기(93곳)보다 12곳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의 주력 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을 가속화해 지방 소멸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중지하고 오히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서둘러 비수도권에 청년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 또한 유턴 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방 경제부터 살려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김창균 광주예술고 교감

거문고의 줄을 고르는 기구를 기러기 발이라고 한다. 단단한 나무로 기러기의 발 모양과 비슷하게 만들어 거문고 줄 밑에 고고, 이것을 위아래로 움직여 줄의 소리를 고른다. 그런데 아교홀로 기러기 발을 붙여 놓고(膠柱) 거문고를 연주한다면(鼓琴) 어떻게 될까. 줄은 날씨에 따라서도 당겨졌다 늘어났다 하기에 지금은 음이 맞아도 다음에는 맞지 않을 것이고, 유통성 없고 고지식한 태도를 ‘교주교술(膠柱鼓瑟)’이라 한다.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융통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 코로나19가 가세하니,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기성의 흐름을 되돌아 볼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세기 선생님이 21세기의 아이들

해현경장(解弦更張)의 지혜

을 19세기 근대 교육의 산물인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교주교술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학교도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길을 접하며, 비대면 상황의 온라인 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혼합형 학습) 등의 수업 형태부터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의 학교는 ‘콘택트’(Contact)로 진행되며 교사와 학생의 대면,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사례가 있으니, 발명왕 에디슨은 당시의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교육용 영사기를 제작하며 “미국 교육에 있어 영사기를 통한 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매체는 있을 수 없다”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 교실에서 교육용 영화가 발붙일 자리는 없었다. 존 듀이(John Dewey)의 지적처럼 ‘아이들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해 보며 상호 작용하는 학습을 통해 가장 잘 배운다’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긍정적이고 원활한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고, 더 행복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외

로움의 위험성은 흡연이나 비만에 비견(比肩)한다는 연구도 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실질적 접촉은 교육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도 ‘비대면’(Un-tact) 상황이 불가피하게 현실화한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인류 사회는 교육의 역할이 지식 전수 말고도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해 책임감을 배우고 정서적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았다. 산업화 이전의 영국에는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지식인들이 귀족 자녀를 동반하여 유럽의 기술 산업과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이 유행이었다. 애덤 스미스(Adam Smith)도 당시 재무장관의 아들을 데리고 프랑스를 다니며 케네의 중농(자유방임)주의를 접했고, 귀족 후 유명한 ‘국부론’을 저술했다고 한다. 이처럼 18세기 이전의 교육은 일대일 또는 토론식 수업을 통해 지식과 사회성을 기르는 전인 교육이 기본이었다.

19세기 이후 산업과 사회에서는 생산 활동 인력 양성을 위한 지식 전달 중심의 일방 수업이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학

생과 교사가 함께 하는 교실은 작은 사회로서 상호 작용을 통한 배움을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 이어왔으며, 현실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인성 회복 방안에 대해 꾸준히 성찰해 왔다. 그러하기에 언택트 상황에 맞춰 이른바 ‘1타 강사’ 중심의 인터넷 강나 원격 수업 형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이 상호 협력과 도전 속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해현경장’(解弦更張)이라 했으니, 음이 틀어지면 기러기발을 옮길 수도 있겠지만 순간을 모면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줄이 느슨해지고 음이 맞지 않을 때는 본질적으로 거문고 줄을 바꿔 매야 한다. 팬데믹 상황이 울지라도 ‘BC’(Before Corona) 시대의 선별을 위한 경쟁이 여전한 학교 현장에서의 근본적 혁신 과제는 학생들이 원활한 사회 작용 속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그 안에서 비롯되는 개별성과 창의성을 ‘AC’(After Corona) 시대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고

고개를 넘고 넘어



김홍식 광주국립립중등교장회장·일동중 교장

경상저수지를 지나서 무동리를 향해 접어든 산길은 제법 가파르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 있던 길 주변에는 막 흰 꽃을 매달기 시작한 애기나리 무리들이 나무 사이로 비껴든 햇살을 받아 투명한 연두색 이파리를 애잔하게 흔들며 길손을 반긴다.

백담정재! 민족 수난기에 수십, 수백의 의로운 장정들이 쫓고 쫓기며 생사를 걸고 넘나들던 고개다. 유년치에서 북산을 향해 세력을 떨치던 호남정맥의 산세가 무등을 향해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잠시 호흡을 조절하는 길목이다. 이곳에서 나무꾼도 쉬고, 장꾼들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잠시 한숨을 돌렸을 것이다. 그저 말없이 재를 지키고 있는 돌무더기 위에

발걸음이 가벼워지라는 마음을 실어 가만히 돌 하나를 엮어 본다.

삶은 길 위에 있다더니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 우리네 삶도 이리저리 뻗어가나 보다. 길을 따라 삶을 가꾸고 인연을 만들며 세상과 소통하니 길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아닌가. 길이 없다면 인연도 이웃도 생길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끝내 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길에서 길로 이어진 온갖 만남과 인연 때문에 큰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절절한 아픔과 그리움으로 평생을 가슴앓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동리 이서택도 그렇게 서방님을 만났다. 지금은 웅성산 밑 푸른 물속에 진정을 내어 주고 말았지만 그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커간다. “좋은는 마시 좋아? 코빼기가 어디 붙은 줄도 모르고 시집왔는데.” 얼마나 좋았으면 17살 어린 나이에 서둘러 시집왔냐고 던지는 농담에 준비된 듯 받아치는 대답이다. 막힘없이 이어지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진한 삶의 무게가 실려 있다.

겨우 배낭 하나 메고서 힘들게 재를 넘

어왔다는 말이 무척 호사스럽게 들렸을 지도 모른다. 일부러 땀을 흘리려는 사람과 살아가기 위해 흘려야 하는 땀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산속 덤불숲을 이리저리 헤매며 채취한 산나물을 광주리에 가득 담아 이고, 등에는 찢먹이를 엮은 채 새벽녘에 집을 나서기 시작한 이래로 평생 이 고개를 무수히 넘고 또 넘었다. 무등산 험로를 반 바퀴 돌아 광주의 정터에서 나물을 모두 팔고 나서야 팔죽한 그릇에 허기를 달래고 나면 돌아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다. 보체는 아이를 달래가며 서둘러서 왔던 길을 되짚어 집에 도착하면 어김없이 캄캄한 저녁이다. 집에 남겨둔 딸 아이는 늦어지는 엄마를 기다리다 지쳐 얼굴에 하얀 눈물 자국을 남긴 채 엎드려 자고 있다. 피곤함에 앞서 엄마의 가슴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잠시 “요즘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생각해 본다.

남매를 두고 서둘러 세상을 떠나버린 서방님이 야속하다는 말보다도 산중에서 곡색한 살림 탓에 많이 가르치지 못한 자식들 보기가 지금도 미안하다는 말을 앞세우는 그 마음이 더욱 시리다. ‘저 마음이 끝내 헤아릴 수 없는 심연에 간직한

모성어구나!’ 아들이 내 또래라며 바라보는 눈길에 영락없이 생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찢먹이들에게 젖을 나누며 살아온 살가운 정감이다. “인자 이런저런 생각도 다 내려놔요. 해봤자 모다 씨잘데기 없는 것들인데 허서 머해? 아픈 디나 조개 딸 아파다가 갔으면 허제.” 삼계육십(三杯唯心)인가. 살아온 굶이 굶이마다 쌓이는 게 한숨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한 순간의 이야기거리로 남의 이야기처럼 허허롭게 풀이낼 만큼 스스로 가벼워졌다. 사람이든 산이든 자주 마주보고 오래 살다 보면 많이 닮아간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무등산을 닮은 편안함과 넉넉함이 온몸 가득하다.

길에서 만난 풀과 나무, 새들에게 말을 건네고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귀 기울여 보는 것이 설익은 책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든다. 길 따라 만나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삶의 가르침이 청미래당굴의 새잎처럼 신선하기만 하다. 내가 무등길을 즐겨 찾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벌써 마을 정자까지 내려온 산그늘, 뒷말을 줄인 할머니 얼굴에 눈부터 시작한 작은 미소가 잔잔하게 번진다.

無等鼓

‘염뽀에는 맘이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는 말은 ‘말은 일에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면서 잇속에만 마음을 두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목탁을 치면서 염뽀하는 것보다는 공양할 때 바치는 음식인 ‘잿밥’에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잿밥은 길으로 내세우는 것과 상관없는 잇속이나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명사로 사용하기도 한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 지방의회의 후반 기 의장 선거와 원 구성을 보고 있노라면 그런 속담이 떠오른다. 지방의원들이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

잿밥

주당 소속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이 자리 다툼을 벌이면서 원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또한 상임위원회 배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호도가 높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 안팎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각종 이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노른자’ 상임위에 가려고 발바둥 치는 것이냐는 폄자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광주 시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의욕적인 의정 활동보다는 너무 자리 욕심만 낸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뿐만이 아니다. 광주·전남 지역 일부 기초의회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담양 군의회는 전반기 의장단이 후반기 의장단을 또 다시 독식해 마찰을 빚고 있다. 하지만 이들도 정치에 첫발을 내딛는 출발선에서는 순수했으리라 믿는다. 한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염불루기가 벌어지면서 연일 시끄럽다. 광주 시의회는 최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지만,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민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국특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